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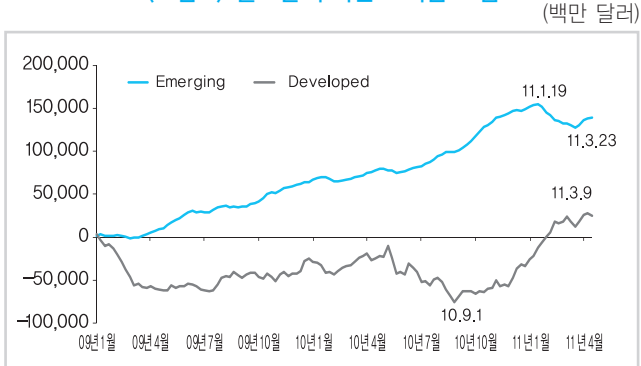
최근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화자금의 국내 유출입 추이와 시사점

박 재 하 (선임연구위원, 3705-6317)

금년 들어 글로벌 자금흐름 및 외화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국내 단기 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있음.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본유출입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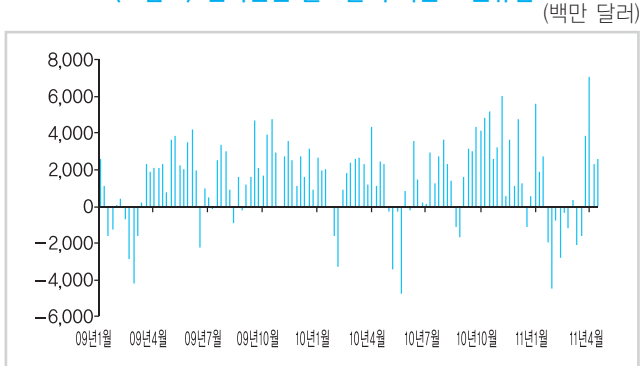
- 2009년 이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대거 이동하던 글로벌 자금이 금년 1/4분기에는 신흥국에서 이탈하여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으나, 3월 하순 이후 다시 신흥국으로 재유입되고 있음.
 - 2010년중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 주식형펀드로 841억 달러가 유입된 반면 선진국펀드에서는 85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나, 금년 1/4분기에는 신흥국펀드에서 277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 선진국펀드로 495억 달러가 유입되다 3월 하순 이후 다시 신흥국 펀드로 유입되기 시작함.
 - 이와 유사하게 한국관련 글로벌펀드도 작년 말까지 순유입을 지속하다 금년 1/4분기에 한때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나 3월 하순 이후 다시 순유입으로 반전됨.

〈그림 1〉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 흐름



자료 : EPFR

〈그림 2〉 한국관련 글로벌 주식펀드 순유입



주 :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펀드 합계(GEM, ASIA ex Japan, International, Pacific)

자료 : EPFR

- 외국자본의 국내 유출입도 글로벌 자금흐름과 유사하게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식투자는 금년 2월 이후 급격한 감소세에서 3월 중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채권투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, 단기 외화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.



- 외국인 주식투자는 2009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금년 2월부터 급격히 이 탈하여 1/4분기중 약 29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됨.
- 외국인 채권투자도 2009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에서 금년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, 국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꾸준히 순투자를 지속하는 반면 태국은 투자액이 급감함.
- 외화차입은 2010년 2/4분기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금년 들어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월중 단기차입은 67.2억 달러 증가함.

〈표〉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

(단위 : 억 달러)

	2008	2009	2010					2011,1/4			
				1/4	2/4	3/4	4/4		1월	2월	3월
포트폴리오	-258.9	482.9	420.9	102.7	88.0	126.8	103.5	11.8	18.4	-20.7	14.1
주식	-336.2	256.6	230.2	59.1	26.9	50.3	94.0	-28.6	12.1	-33.2	-7.4
채권	77.3	237.2	190.7	43.6	61.1	76.5	9.5	40.4	6.3	12.5	21.6
외화차입	-241.4	78.5	-76.8	46.1	-0.9	-22.6	-99.5	137.8	24.7	26.9	86.2
장기	1.3	41.2	53.6	4.6	4.4	36.0	8.7	14.3	-0.8	-3.9	19.0
단기	-242.7	37.2	-130.4	41.5	-5.3	-58.5	-108.1	123.5	25.5	30.8	67.2

자료 : 한국은행 "조사통계월보"

- 금년 들어 외국인의 자본유출입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이익 실현과 함께,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, 그리고 원화강세 전망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.
 - 외국인 주식투자는 지난 2년간 대규모 자금유입 이후 이익실현,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우려, 그리고 중동지역의 위험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금년 들어 순유출을 기록함.
 -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국내 경기의 견고한 상승세 및 기업실적 호조, 그리고 원화절상 기대 등으로 다시 큰 폭의 유입세로 반전됨.
 - 단기외화차입은 최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(NDF) 순매도 증가에 따른 국내 은행의 달러화 수요 증가, 그리고 역외외화 공모사채(김치본드)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- 앞으로도 외화자금의 유출입은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.
 - 미국과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, 상대적으로 견고한 국내 경기상승세 및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, 그리고 원화강세 전망 등은 향후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그러나 미 연준 양적완화프로그램(QE2)의 6월말 종료와 재정긴축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와 선진국의 금리상승 전망 등은 자본유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특히 원화절상 기대심리가 상존하는 가운데 향후 수출기업의 실적호조에 따른 선물환 매도 및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매도 등으로 단기 외화차입이 증가할 요인이 상존함.
- 정부는 앞으로 외화자금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화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 단기외채의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원화절상 기대심리의 해소, 실물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한도 축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**KIF**